

## Concerned about Nocturia

- World Continence Week in Korea

- **Campaign Title: The 6<sup>th</sup> Gold Ribbon Campaign**
- **Subject: Nocturia prevalence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aged over 40**
- **Slogan: "Say 'No' to Sleep Stealing Nocturia"**
- **Objectives**
  - 1)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nocturia and correct misperceptions about nocturia
  - 2) To increase urologist visits and promote aggressive treatment
- **Term: June 18<sup>th</sup> ~ 30<sup>th</sup>, 2012**
  
- **Background**

There are many global awareness campaigns which inform about a specific disease and encourage treatment such as the Pink Ribbon Campaign (for breast cancer) and the Red Ribbon Campaign (for AIDS). Those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with great results. However there was no campaign which addressed voiding dysfunction such as incontinence, overactive bladder which is equally important. Because of this, the Korean Continence Society (KCS) and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KUA) decided to launch a campaign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urological disorders, educate the public, and promote treatment. The initiative was named the Gold Ribbon Campaign, with the color symbolizing the ideal color of healthy urine, and since 2007, the nationwide campaign has been run during the two weeks surrounding World Continence Week (WCW).

The Gold Ribbon Campaign focuses on raising awareness of urological disorders such as overactive bladder, urinary incontinence and urine retention. This year marks the sixth year of the campaign. Under 2012 Gold Ribbon Campaign, a variety of activities were conducted on nocturia, which is experienced by many men but frequently not recognized as a disease requiring treatment.

### ■ Campaign Activities

#### 1) Designation of Campaign Week

With the campaign slogan of "Say 'No' to Sleep Stealing Nocturia," the KCS designated the weeks from June 18 to June 30 as Gold Ribbon Campaign Week. During the campaign, posters with employing thief imagery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the slogan were displayed at more than 140 hospitals across the nation ([Fig. 1](#)). Member urologists wore a Gold Ribbon pin ([Fig. 2](#)) to promote the Gold Ribbon Campaign and emphasized the need to treat nocturia with patients, peer doctors and nurses.

#### 2) Survey

A nationwide survey of 1,842 males and females adults over 40 was conducted. 65% of those surveyed reported symptoms of nocturia which affected their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Still, 75% said they did not consult a doctor, leaving their symptoms untreated. 63% said they thought the symptoms were a natural phenomenon, like aging,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improved awareness.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ose who experienced nocturia had difficulty getting quality sleep, and 18% also experienced depression, a rate two times higher than in normal persons. Additionally, nocturia was found to severely impair quality of life, affecting sex life, and cause daytime drowsiness in some people.

#### 3)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Free Mobile Apps

KCS and KUA developed and distributed two free mobile apps that provided the public with information on nocturia and urological disorders and could be used as a self-evaluation tool. One app, 'Urine Troubleshooter', allows users to perform a self-evaluation of symptoms related to urological

disorders and to evaluate the disease severity. The other app, ‘Bladder-Pelvis Clinic’,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muscular exercises, bladder training, cystitis prevention, overactive bladder, and female care (Fig 3).

#### **4) Media Activities**

In June and July, three television news reports, two radio reports and 132 printed news reports were produced as a result of four press releases (about the campaign week designation, the nocturia survey, nocturia and daytime drowsiness, and the free mobile apps). Many of these were by TV programs with high viewerships, major daily newspapers, and trade media with many male readers. There were an estimated 79,554,200 impressions (Table 1) with the entire population of Korea (48 million) exposed an average of 1.7 times to the message on nocturia and the need for treatment. The exposure frequency increases when considering the adult population alone (Fig 4~13).

#### **■ Campaign Outcome and Suggestions**

On the occasion of the World Continence Week, the KCS and KUA has conducted the Gold Ribbon Campaign ever year for six years,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of urological diseases in Korea.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the campaign week, the nocturia survey, and media promotion, the Gold Ribbon Campaign has improved the low public awareness of overactive bladder, nocturia, and urinary incontinence, while encouraging many to visit urological clinics to receive treatment by correcting misperceptions of a disease misunderstood to be a natural phenomenon that needs no treatment or a cause of embarrassing symptoms that need to be hidden.

Given the exceptional outcome of this campaign for awareness of urological disorders in Korea, we would believe the Gold Ribbon Campaign should expanded to an international campaign like the Pink Ribbon or Red Ribbon campaigns. If every country launches a Gold Ribbon Campaign covering the same topics during World Continence Week, we can deliver more powerful messages to the public regarding urological disorders.



< Fig1. The 6th Gold Ribbon Campaign Poster >



< Fig2. Gold Ribbon Campaign badge>



< Fig3. Free Mobile Apps: Urine Troubleshooter and Bladder-Pelvis Clinic >



< Fig4. SBS 8 News / 17, June, 2012  
“6 people out of 10 adults suffer from nocturia” >



< Fig5. YTN News / 17, June, 2012  
“Depression caused by nocturia”>



< Fig6. KBS 1 Radio / 27, June, 2012 / 7, July, 2012  
“Silver Generation”>

**東亞日報** 2012년 06월 27일  
00면(보건/의료)

## 중년 남성에 가장 흔한 질병 고혈압·당뇨병? … NO, 야간뇨!

40세 이상 남성에게 흔한 질병이라고 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떠올리기 쉽다. 2010 국민영양건강조사에 의하면 이 연령대 남성의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은 각각 11.3%, 30.1%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비뇨기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의 유병률은 65%가 넘는다. 상당수 중년 남성이 야간뇨로 고통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간뇨는 10명 중 8명이 경험하는 비뇨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말 그대로 밤에 잠을 자다가 깨서 1회 이상 소변을 보는 증상이다. 자기 전 물이나 술, 음료 등 수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생긴다. 증상이 계속되면 전립선비대증, 과민성방광, 전립선염을 의심해야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은 “야간뇨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야간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배뇨횟수와 배뇨량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상태와 원인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 생리적인 현상이나 노화 현상으로 알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학회 조사에 따르면 야간뇨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야간뇨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을 찾아 치료를 막고 증상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태에 따라 간단한 약물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진현 기자·의사 ikeday@donga.com

**야간뇨, 이런 때 의심하라**

- 평소 배뇨가 찾고 자주 잠에서 깨 1번 이상 배뇨 욕구를 느낄 때
- 야간뇨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때
- 자기 전 수분 섭취를 자제하였음에도 야간뇨 증상이 멈추지 않을 때
- 야간뇨로 수면에 방해를 받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14.8×30.8cm)

< Fig7. The Donga Ilbo / 27, June, 2012  
“The most common disease in middle-aged men is Hypertension? Diabetes? No, Nocturia!”>

# 야간뇨 방치하면 중년 건강 탈난다

## 잠잘때 깨서 소변 보는 증상 수면 방해·성생활에도 문제

40세 이상 10명 중 6~7명은 야간뇨 증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정서적으로 삶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비뇨기·여뇨학회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 대 도시의 40세 이상 성인 남성 1842 명을 대상으로 야간뇨와 삶의 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야간뇨란 배뇨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잠을 자는 중 1회 이상 깨어 소변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전립선염이 3대 원인질환이다.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5%가 야간뇨 증상을 갖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7.3%, 50대 64.5%, 60대 77.8%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야간뇨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으로 여겨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환자 중 75%는 전문가를 방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이유로는 “야간뇨를 노화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다.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라고 답한 환자도 16%나 돼 야간뇨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간뇨 환자 중 절반이 넘는 56.1%가 출분한 양의 수면을 취하는 데 방해된다며 응답했다. 통증이나 불편으로 고통받는 환자도 31.9%나 됐다. 우울증을 동반한 야간뇨 환자 비율 (17.8%)이 정상인(8.1%)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야간뇨로 인해 환자의 48%가 직장생활에, 20.1%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야간뇨는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성생활을 활발히 하는 환자가 45.7%로 절반도 채 안 됐다. 또한 환자 2명 중 1명 정도가 경증 이상의 발기부전까지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설 대한비뇨기·여뇨학회 회장은 “야간뇨는 40대 이상의 남성에게 고무 나타나는 흔한 배뇨장애

##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 주요 증상

- 평소에도 충분하지 않게 깊다
- 자주 깨어서 약간 이상 배뇨한다
- 야간뇨 증상이 장시간 지속된다
- 자기 전 수분 섭취를 차폐했는데도 야간뇨 증상이 계속된다
- 야간뇨로 수면에 방해를 한다

자료: 대한비뇨기과학회



증상이지만, 대부분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간뇨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삶의 질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빈번된다면 배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배뇨건강을 체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야간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 전립선 및 방광 등의 건강을 체크하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가 얼마나 자주 배뇨했는지 스스로 기록하는 배뇨일기를 통해 증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른 약물·수술요법이 시행되며 수분 섭취량 조절 등의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9.8~30.7)cm

<Fig8. The Korea Economic Daily / 25, june, 2012  
“Nocturia is harmful if ignored in healthy middle-aged people”>



## 혹시, 당신도 소변 마려워 잠 깨나요?

### 40대 이상 남성 65% 야간뇨로 '괴로운 밤'

국내 40~50대 남성 10명 중 6명, 60대는 7명이 야간뇨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뇨란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 흔한 하부로 증상이다. 전립선비대증과 폐민성방광, 전립선염, 다뇨, 악간뇨, 방광증적 저하 등이 원인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정용기)와 대한비뇨기학회(회장 이규성)는 전국의 40세 이상 성인 남성 1842명을 대상으로 한 약간뇨 전국서베이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40세 이상 남성의 편번을 넘는 65%가 야간뇨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작-경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57.3%, 50대 64.5%, 60대 77.8%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야간뇨를 노화현상으로 인식해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악간뇨가 있다고 등급별 사감 중 75%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야간뇨를 노화현상으로 알고있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료가 필요한 증상인 것을 불러서 띄는 환자는 18%나 됐다.

또 야간뇨 환자 중 56.1%는 야간뇨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고, 통증이나 불편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환자는 31.9%나 되었다. 이 같은 환자들의 상황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자리매김해 우울증을 동반한 악간뇨 환자들은 (78%)이 경상인(8.1%)의 2배가 넘었으며, 이런 현상

나이 많을수록 유병률 높아  
환자 절반 이상 "수면 방해"

10명중 3명 둥중·불편 호소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판단

10명중 7명이 치료 안 받아

증상 반복·면 전문의 찾아야

은 꿈을수록 심해 40대는 경상인의 3배, 50대도 2배가 넘는 유병률을 보았다. 또 야간뇨 환자의 46%는 적장생활에 20%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야간뇨는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성생활을 활발히 하는 환자가 45.7%로 절반

안 됐으며, 환자 2명 중 1명은 경증 이상의

폐기부전 증상까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야간뇨 환자들은 꿈을위해



도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중에 화장실을 찾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골절상을 당하는 것. 실제로 최근 1년간 1회 이상 골절을 당한 환자가 8.1%로 경상인(3.6%)의 2배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빠져 있다. 악간뇨 환자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5.4%, 고혈압은 30.1%로 경상인보다 훨씬 높은 유병률을 보았다.

이규성 대한비뇨기학회 회장은 '야간뇨는 40대 이상 남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뇨장애 증상이지만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면서 '야간뇨는 건강의 이상신호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다'로 증상이 반복될 경우 기꺼운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심체의 전문가 jeshim@seoul.co.kr

(23.2x20.6cm)

< Fig11. The Seoul Shinmun / 2, July, 2012  
"Do you ever wake up really pissed?" >

### 세계일보

2012년 07월 02일  
경연(면접)보도/획득/미술

40대 이상 10명 중 6~7명은 야간뇨 증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으로 삶의 힘듦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비뇨기과협회(회장 정용기)가 부산대병원 원내성기과 교수와 대전대병원정형외과교수 이규성 선임교수팀이 공동으로 개최한 40대 이상 성인 남성 생활질을 대상으로



야간뇨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실태 조사를 벌린 결과, 이같은 증상은 19세도 19명이었다. 악간뇨는 평균 1회 이상 해마다 소변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전립선염이 3대 원인질환으로 나타나며,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 야간뇨 방치하면 신체·정신건강 해친다

### 대한비뇨기학회 등 성인남성 1842명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5%가 야간뇨를 갖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야간뇨를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비뇨기과 협회(회장 정용기)가 부산대병원 원내성기과 교수와 대전대병원정형외과교수 이규성 선임교수팀이 공동으로 개최한 40대 이상 성인 남성 생활질을 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 주요 증상  
• 야간뇨: 충상이 있고 주로 화장실에 간다. 여성 비뇨  
• 불면증  
• 이같은 애간뇨 증상은 징후로 간주하지  
• 초기 친수성 질환을 자제해 생활에도 악간뇨 증상이 유발  
• 애간뇨 주로 생활에 방해를 끼친다.  
같은

가다가 한번 이상 새 소변 보는 증상

40세 이상 10명 가운데 6~7명 해당

환자 대부분 노화로 어려 치료 안받아

성생활에도 영향·점막이 빨기부전

생활을 활동화 하는 환자가 45.7%로 절반. 대

된다. 또한 환자 2명 중 1명 정도가 경증 이상의

개선되거나 경증으로 드러난다.

또 애간뇨 환자 중 절반이 넘는 56.1%가 충분한

영양 수준을 취하는데 평균 1회로 충분하고, 통

증이나 불편으로 고생하는 평균 2회로 악간뇨

우울증을 경험한 애간뇨 환자 대비 1회로 경상인

인원(5%)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특히 절수수와 심리학적 문제에 정상

현보다 세 배, 50대에서는 두 배가 넘는 유병률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그나 애간뇨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삶의 질 향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애간뇨증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애간뇨를 피하기위해서는 소변 감자, 전립선 및 방광 등의 건강을 챙기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가 얼마나 자주 애간뇨하는지 스스로 기록하는 '뇨날짜기'를 통해 증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물과 길장을 따른 약물, 수술요법과 사광제과 수술

체외유로조절 등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액체를 기른

ptth229@segye.com

(23.2x20.6cm)

< Fig12. The Segye Ilbo / 20, June, 2012  
"If you ignore nocturia, it can ha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



< Fig13. Articles on nocturia on the main pages of portal sites >

Table 1. Summary of the Journal Impression

Media	Date	Page	Headline	Journalist	Impression
<b>Broadcasting (4)</b>					
SBS 8 시뉴스	06/17	On/Offline	성인 10 명 중 6 명 '야간뇨' 고통…나이 들수록 ↑	안영인	43,932,000
YTN	06/17	On/Offline	'밤중 소변' 우울증까지 유발	고한석	3,307,000
YTN	06/17	On/Offline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나요?…몸의 '이상 신호'	N/A	3,307,000
KBS 1 라디오	06/27	-	'지금은 실버시대' 야간뇨 오프닝	지영서	7,000
<b>Newspaper (19)</b>					
국민일보	06/19	16 page	"아! 또 마렵네" 한밤중에 벌떡… 중·장년 남성들의 잠을 훔치는 '야간배뇨'	이기수	313,000
한국경제	06/25	C3 page	야간뇨 방지하면 중년 건강 탈난다	이준혁	2,049,000
서울신문	07/02	25 page	혹시, 당신도 소변 마련위 잠 깨나요?	심재억	1,534,000
파이낸셜뉴스	06/18	22 page	화장실 가느라 밤잠 설치는 당신, 혹시..	정명진	676,000
세계일보	06/20	25 page	야간뇨 방지하면 신체·정신건강 해친다	박태해	1,269,000
한국일보	06/22	27 page	[Check! 건강소식] 40 세 이상 남성 65% 야간뇨	N/A	2,420,000
중앙일보(뉴스시스)	06/18	On-line	40 세 이상 남성 65%가 '야간뇨', 생활할 영향은…	N/A	2,766,000
매일경제	06/18	On-line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이병문	1,610,000
쿠키뉴스	06/18	On-line	"국내 성인男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박주호	1,090,000
이투데이	06/17	On-line	40 대 이상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전민경	72,000
스포츠조선	06/18	On-line	성인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뇨 시달린다	임정식	1,140,000
경상매일	06/25	16 pgae	40 세 이상 남성, 65% 야간뇨 증상	김도은	21,000
경안일보(뉴스시스)	06/20	10 page	40 세 이상 男 10 명 중 7 명 야간뇨 시달려	N/A	21,000
대경일보(뉴스시스)	06/20	13 page	"40 세 이상 남자 10 명 중 7 명 야간뇨"	N/A	21,000
대구연합일보	06/20	15 page	40 세 이상 남자 65% '야간뇨' 시달려	이남진	21,000
경남도민일보	06/19	19 page	자다 깨 화장실로…'야간뇨'에 잠 설치는 중년 남성	김두천	2,500
충부매일(메디컬투데이)	06/22	On-line	40 세 이상 남성, 65% '야간뇨' 증상 갖고 있어	N/A	6,000
한남일보	06/18	On-line	40 세 이상 男 10 명 중 7 명 야간뇨	N/A	6,000
전북중앙신문	06/18	On-line	비뇨기과학회 "40 세 이상 男 10 명 중 7 명 야간뇨"	N/A	6,000
<b>Free Newspapaer (1)</b>					
시티신문	06/18	11 page	중년 남성 대부분 잠자다 소변때문에 깬다	황인교	300,000
<b>News agency (1)</b>					
뉴스스헬스	06/18	On-line	비뇨기과학회 "40 세 이상 男 10 명 중 7 명 야간뇨"	김민경	20,000
<b>Online (6)</b>					
파이낸스투데이(헬스코리아뉴스)	06/18	On-line	야간빈뇨, 쉽게 봤는데 …	N/A	3,500
베이비뉴스(파이낸셜뉴스)	06/18	On-line	잠자다 일어나 화장실 가는 당신, 혹시..	N/A	3,500
데이터뉴스	06/18	On-line	40 대 이상 남성, "잠자다 소변때문에…"	정지현	12,000
데이터뉴스	06/18	On-line	40 대 이상 남성 야간뇨환자, 만성질환 동반 쉬워	정지현	12,000
브레이인	06/18	On-line	성인남자 65%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 왜?	윤관동	3,500
YTN	06/17	On-line	60 세 이상 남성 78% '야간빈뇨'	고한석	907,000
<b>Medical news (25)</b>					
메디컬투데이	06/22	On-line	40 세 이상 남성, 65% '야간뇨' 증상 갖고 있어	김선욱	2,000
헬스미디어	06/19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린다	김아영	2,000
의협신문	06/19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로 시달려	이정환	9,000
헬스포커스	06/19	On-line	밤 잠 훔치는 야간배뇨 이제 그만!	최미라	2,000
약업신문	06/19	On-line	40 세 이상 남성 65% 야간뇨 증상	임채규	12,000
E 헬스통신	06/18	On-line	불청객 밤손님 '야간뇨'… "性 생활도 위협한다"	최성훈	6,000
헬스오	06/18	On-line	40 세 이상 성인 남성 65% 야간뇨로 고통	정종호	2,000
의료정보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김태완	1,000
후생신보	06/18	On-line	40 대 이상 남성 절반 이상 잠도둑 '야간뇨' 시달려	문영중	7,500
의계신문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윤병기	1,000
보건타임즈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강동진	2,000
메디컬업저버	06/18	On-line	야간뇨, 골절과 우울증에도 영향	박선재	1,000

메디소비자뉴스	06/18	On-line	"연령 높을수록 야간뇨 발병 높아… 절반은 발기부전 경험"	이한나	2,000
메디컬헤럴드	06/18	On-line	"성인 男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연령대 높을수록 야간뇨 유병률 높고, 짚을수록 우울증 동반 많아"	이승재	2,000
의사신문	06/18	On-line	40 대 이상 성인남성 10 명중 6-7 명 야간배뇨 현상에 시달려	김기원	2,000
현대건강신문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에 시달려	박현진	2,000
약사공론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린다"	정혜진	12,000
라포르시안	06/18	On-line	성인 남성 10 명중 7 명 '야간뇨'로 고통	손의식	2,000
메디팜헬스	06/18	On-line	야간배뇨 방심하면 큰코 다친다… 우울증 동반도	노원준	1,000
병원신문	06/18	On-line	성인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박현	1,000
의료일보	06/18	On-line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10 명 중 7 명은 야간배뇨에 시달린다	하정환	2,000
메디칼트리뷴	06/18	On-line	성인남성 65%는 야간배뇨장애로 고통	김준호	7,000
일간보사	06/18	On-line	성인남성 10 명 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김현기	2,300
헬스코리아뉴스	06/17	On-line	야간뇨, 쉽게 봤는데 …	김소영	58,000
닥터 W	06/17	On-line	성인남성 10 명중 7 명 야간배뇨 시달려	김영신	2,000
<b>Total number of Journal Reports</b>		<b>56 reports</b>	<b>Impression</b>	<b>67,000,800</b>	